

## 도매시장 기능 도입과 가공산업 활성화가 관건



- 일 시 : 2000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본회 회의실
- 사 회 : 김용화(본지 편집장)
- 참석자 : 천강균(본회 채란분과위원장)  
구천석(서울경기양계축협 이사)  
김국종(한국계란유통협의회 회장)  
김동곤(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  
한종현(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사무관)
- 정 리 : 김동진(본지 기자)

지난해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계란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생산비선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대부분의 채란 양계인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감축 유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초에는 정부에 500만수 분의 노계처리자금 60억원을 배정받아 생산감축에 전념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계가격의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 가운데 난가하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채란 양계업이 풀어가야 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난가 대책과 수입계란 대응전략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편집자주 -

## ◇ 좌 담 회 ◇

▶ 사회 : IMF체제하에 들어간 1998년까지만 해도 적정사육수수인 4,500만수정도가 사육되던 것이 지난 1999년 12월에는 4,700만수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5,200만수까지 사육되어지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아도 생산과잉 현상을 엿볼 수 있는데 난가하락 현상이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 보십니까?

▶ 구천석 : 시설확장이 생산과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자동화 바람이 일면서 생산자들은 정부자금 또는 리스를 이용하여 외국시설을 도입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경제위기가 오기 전인 1997년 중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5년전만 해도 생산비선 이하로 난가가 하락 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10개월 이상 생산비선 이하를 밑도는 현상은 생산시설 확장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천강균 : 난가하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농가들이 무계획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지금의 어려움을 간파하고 노계도태 및 입식자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산자들은 통계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단지 상인들이나 일부 병아리 장사들의 말만 듣고 1998년 하반기부터 입추에 열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5,200만수는 가히 가공할 만한 숫자이며 이런 상태에서 계란가격 안정을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 김국종 : 계란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저난가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지방과 수도권이 그



◇ 구천석 : 5년전만해도 생산비선 이하로 난가가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시설확장으로 인한 생산과잉이...

동안 계란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수입계란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수입되면서 저난가를 부추겼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싸다고 더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축협, 농협 등에서 계란을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함으로써 ‘계란이 얼마나 싸면 무료로 나누어 주느냐’며 계란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어 소비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김동곤 :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계란소비는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부류의 식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의 식단에서 아직까지 가장 싸고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이 계란이며 아무래도 시중에 계란이 싸게 판매되니까 하더라도 더 먹게 됩니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워낙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단체급식이 늘어나면서 일반가정에서 밥반찬으로 많이 사용하던 계란을 덜 소비하는데 있

## ◇ 좌 담 회 ◇



◆ 김동곤 : 소비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단체급식 증가로 일반가정 소비가 준데서 찾을 수도...

으며 단체급식소에서도 인력부족과 계란을 깨는데 번거로움 등의 이유를 들어 계란요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 : 저난가의 원인은 소비부진과 생산과 임에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최근의 계란소비 경향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국종 : 다행히 최근 들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구제역 파동의 원인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빵업체 등 가공업체에서의 액란의 주문량이 늘고 있으며 할인 매장 등 마트에서 작은알 중심으로 전품목 세일을 하고 있어 다소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cảm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천석 : 최근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반응중 판매되어지는 흰알이 수입산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지않게 생산되고 있는 흰알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않을

까 걱정됩니다.

▶ 사회 :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계도태 사업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노계도태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 한종현 : 정부에서는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3차례 걸쳐 78억을 지원하여 노계수매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서로의 이익만을 내세워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난감한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차로 7개 가공업체에 2,500톤을 처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4월 11일 현재 1,100톤을 처리하여 45%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들면서 다시 노계가격이 올라가자 농가에서는 700원대를 요구하며 출하를 기피하는가 하면, 도계, 가공업체들은 냉장 및 냉동 창고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일부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계도태자금은 저난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해지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심분 이해하여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동곤 : 금년들어 정부에서 계정육업체에 6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 과정에서 시행착오만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막상 제도적으로 시행하는데만 2개월이 걸렸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노계가격이 올라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적으로 계정육을 처리할

## ◇ 좌 담 회 ◇

수 있는 업체들이 담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 등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계획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물량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정육업체를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되 양계조합 등에 자금을 주어 실질적인 노제도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계가격을 700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처리 업체들의 실정을 보면 노계가격이 700-800원이 갈 경우 판매 가격이 1,600원 선이 유지되어 유통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200원 정도면 1,2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천강균 : 노계처리 문제는 우선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계전문 도계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하여 적기에 노계를 처리할 수 있는 조절기능을 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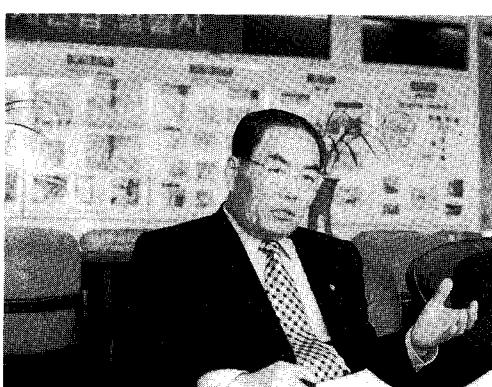


◇ 김용화 : 국내 생산시설은 선진국에 못지않으나 유통분야는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그럼으로써 노계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더 나아가 칠면조육의 수입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 : 국내의 생산시설은 선진국에 못지 않게 접근을 하였으나 유통분야는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유통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천석 : 국내의 유통과정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현재 산지가격은 생산비선 이하에서 거래되는데도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는 오히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 패턴도 과거에 비해 소단위 포장으로 바뀌면서 포장비용도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할인점 등 대형마트에서는 서로의 물량을 타 상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덤핑을 자행하면서 난가를 흐려놓는 등 점점 복잡한 유통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자를 위시한 양계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아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 천강균 : 노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계전문 도계장 확충이 시급...

## ◇ 좌 담 회 ◇

▷ 김국종 : 과거에는 생산위주로 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생산과 유통이 함께 변하고 있는 만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유통이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거래 가격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 가격은 물론 상인가격도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물론 할인매장, 슈퍼, 구멍가게 등에서 유통되어지는 가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천강균 : 앞으로는 계란을 생산하여 매장으로 직접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을 위시로한 GP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상인들도 이곳을 통해 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면 상인들이 농가에 들어가 다운, 후장기, 일명 후려치기 등의 관행도 자연히 사라질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퀴터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수수 감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축협이나 농

협의 매장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종현 : 그동안 정부가 유통에 대해 신경을 덜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계란과 닭은 현재 시장기능이 없습니다. 이제는 수요공급을 조절 할 수 있는 매카니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축산물 종합 처리센타를 설치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가락동 등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하장 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WTO체제하에 수입계란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란 닦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다든지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것입니다. 계란 등은 질병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산지표시를 강화한다면 수입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사회 : 생산감축, 소비, 유통 등에 대한 당면 문제들을 논의해 주었는데 생산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동곤 : 우리 관련 단체도 이번에 계란을 이용, 이웃돕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큰 호흡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정부 등 관련단체 등에서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란가공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공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나 국



◇한종현 : 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축산종합처리센타를 설치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도입할 계획으로...

## ◇ 좌 담 회 ◇

내 산업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김국종 : 정부차원에서 공판장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 것만 잘 운영된다면 생산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버스 및 지하철광고가 큰 매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TV 등에서 생산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통상인들이 계란을 판매하는데 의욕을 잃어 소비 감소를 조장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한종현 : 정부에서는 3월 중순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계란·시주기 캠페인 행사를 벌인 결과 4월 초 집계로 보면 350만개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계란 반개 더먹기 운동을 벌여 4,750만개를 더 소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단체 급식에도 사용토록 권장을 하였고 주부들에게 도 강연회를 마련하여 요리책자 등 홍보책자를 이용하여 영양사와 등 관련 단체에도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 구천석 : 생산자들은 이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산자들은 지금까지 보호막 속에서 살아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난 가하락을 정부와 협회 등에 비난만 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간파하고 생산비, 이윤 등을 꼼꼼히 따져 관리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곳 까지 경영의 손길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김국종 : 버스 및 지하철광고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비확대를 꾀해야...

그러면서 계란의 품질을 높이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인들도 농가에서 품질이 좋은 계란을 생산하면 2-3월 더 주고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상품의 질이 유통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천강균 : 소비확대를 위해 대규모 계란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계란가공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가공공장에서 계란을 팩으로 유통시키는 가공제품 생산에 연구를 넓혀가야 합니다.

생산자들은 또한 계란의 위생문제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위생,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추진하는 ND방역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수입계란을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난가 현실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해결되면 후장기를 뿐리뽑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사회 : 감사합니다. 양계